

다리로움, 올해도 '모두 다 이롭게'

익산 지역사랑상품권 올해 목표 발행액 4320억원... 도내 최고 수준 발행 후 실 결제율 98.7%... 골목상권 구석구석 누비는 선순환 입증

익산 지역사랑상품권 '다리로움(多로움)'이 올해 안에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는 오는 4월 내로 다리로움 발행 카드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올 한 해 지역사랑상품권 432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연간 발행액일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 다리로움은 2020년 1월 17일 처음 도입돼 올해로 5년 차를 맞았다. 지난 10일 기준 누적 발행량은 약 1조 7,100억 원이며 가입자 수는 익산시 인구의 88%에 육박하는 23만 8,000명에 이른다. 올해 4,320억 원가량이 발행되면 누적 발행액은 2조 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뛰어넘게 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발행액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발행 후 실제 사용한 금액은 1조 6,900억 여 원으로 결제율 98.7%를 기록하고 있다. 발행된 상품권 대부분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증명된 셈이다.

다리로움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가 진행한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다리로움은 96.8%의 지지를 얻으며 익산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익산시 정책으로 선정됐다. 다리로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98.8%가 다리로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도 다리로움 활성화에 앞장선다.

/익산=이재춘 기자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올해도 인상

군산시, 1년 이상 빈집 소유주 자진철거 시 보조금 50만원 상향 지원

군산시가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금액을 작년 이어 올해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증가하는 빈집은 붕괴 및 안전사고, 도시 취약지역 발생에 따른 범죄 악용, 쓰레기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등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철거비 부담으로 소유주들이 철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까지 2,100여 동을 정비하였고 올해도 사업비 3억6천만 원을 투입하여 10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올해 역시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50만원씩 인상하여 빈집소유주들의 철거비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늘어난 지역의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원, 기타 지

붕 빈집은 300만원이며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지역의 경우는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5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4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임시주차장·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 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4월 5일까지로 빈집의 현황 사진, 소유권 증명자료 등을 갖추어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소유자들의 철거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올해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소유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백제에 반하다' 익산 백반 여행 16일 첫 운영

케이(K)-관광 도시 익산시가 파스한 봄을 맞아 기획한 '동행! 백반 여행'이 16일 손님맞이를 시작했다.

'백반 여행'은 음식 '백반'과 '백제에 반하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번 맛보면 다시 먹지 않을 수 없는 익산의 음식과 깊이 있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일석이초의 관광 상품이다.

올해 첫 백반 여행에는 총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불교 총부에서 총부 해설로 시작했다. 이어 고스라파 아가페정원에서 미식·정원 관광이 이어졌다. 이후 고도 백제의 유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방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행에는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지역의 역사와 관광을 재미있게 풀이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총력

50대 중점사업 선정, 이달부터 예산 확보 위한 전방위적 활동 나서

익산시가 지역 발전과 대도약의 마중물이 될 사업들의 국비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난 15일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2025년 국가 예산 확보대상사업 보고회'를 개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규 사업 66개를 포함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총 442개의 사업을 국비 확보 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시는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이번 달부터 중앙부처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 연고 정치인과 소통 등 전방위적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식량기업 전문교육센터 △수소·전기차 내부구조 분석용 3D 검사시설 구축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사업비 9,687억 원 규모의 66개 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계속사업은 △홀로그래프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등 37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민생기공약(7개 비전, 92개 사업) △익산 미래도시 비전(국제철도, 녹색정원, 역사

문화, 바이오산업, 세계식품 도시) △혁신성장, R&D 등 미래성장동력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응 분야에서 신규 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해 왔다.

올해 두 차례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으며,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기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소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선유도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주기적 진행 안전 강화

군산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유도해수욕장 방사능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항목은 총 3가지 항목으로 방사능 물질인 134Cs, 137Cs와 삼중수소(3H)이며 공인인증 받은 전문 연구기관이 성수기(6월~9월)에는 매주 1회, 비수기에는 격주로 진행한다.

군산시는 이미 작년 7월부터 매월 2회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그간의 조사 수치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판곤 기자

(<https://www.mof.go.kr/ocarsafet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산시에선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해수욕장 피서객 맞이와 위해 6월까지 △편의시설 점검 및 보수 △유관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장준비 추진상황 보고회 △준비 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성수기 기간에는 백사장 토양 및 수질 조사 실시와 안전관리 요원 투입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수욕장 개장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보건소, 24일까지 결핵 예방 주간 운영

군산시보건소는 3월 24일 제 1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8일부터 24일까지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결핵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기침, 가래, 발열, 체중감소,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반 감기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때문에 결핵은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핵 예방 주간 동안 군산시는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독려 △65세 이상 어르신 1년 1회 결핵 검진 권고 등의 내용으로 거리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거리 캠페인은 22일 오후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진행되며 보건소 감염병 관리 직원들이 결핵과 더불어 에이즈 및 진드기 예방 수칙 등 전반적인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동네문화카페 '학습 수다(受多)방' 추진

군산시가 시민들의 노후우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는 '학습 수다(受多)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학습 수다방은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 정규 특화 강좌가 호평을 받는 가운데 새롭게 시도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 수다(受多)방'은 전문 강사가 아닌 시민들의 그간 배움과 삶의 지혜가 녹아든 다양한 학습경험과 지식 등을 발굴, 소개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형식이다.

신청은 18일부터 수시로 가능하며 접수받은 아이디어들은 사회 공헌도 차별성 등을 기준으로 부서 심사가 진행된다.

선정된 수다방은 수강생 공개 모집이 가능하며 5인 이상 모집 시 수다방이 개설되고 지역 상가에서 진행된다.

개설된 수다방은 주중에 따라 1회 2시간씩 최대 4회까지 운영 가능하며, 노후우를 공유한 시민강사에게 강사료 대신 행복 포인트가 적립된다. 행복포인트는 평생학습 강좌 및 관련 재

능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다.

만약 행복포인트가 3만점 이상 적립되면 도서로 교환할 수 있어 사회적 재능 기부와 동시에 지식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일석이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다방 수강 후 수강자들의 피드백 및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경우 동네문화카페 특화 강좌 개설 또는 부서 소관 교육 강사로 위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보건소, 고혈압·당뇨교실 참여자 매월 모집

군산시 보건소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혈압·당뇨 질환자 및 고위험군 등을 대상 '건강 UP! 혈관 청춘 고혈압·당뇨 교실' 참여자 20명을 3~10월까지 매월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하나로 실시되며 민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적절하게 관리해 올바른 건강 지식을 교육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의료비를 절감하

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14시~15시에 운영되며,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혈압·당뇨병 관리 이론 식이요법 및 식단체형, 운동 관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